■ 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81-414.
http://doi.org/10.17948/kcs.2022..94.381

조선시대의 한글 번역서와 여성 지식사*

박영민(朴英敏)**

목 차

1. 서론
2. 家乘類 번역과 여성의 私的價値 학습
3. 정치서 번역과 여성의 輿論 형성
4. 중국사 번역과 여성의 公的價値 학습
5. 연행록 번역과 여성의 호기심 발현
6. 마무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지식사의 경로 추적을 목표로 여성의 책과 독서의 문화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는 조선시대에 여성을 독자로 하여 한글로 번역된 史部類 고문헌과 여성 지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여성을 독자로 상정한 한글 번역서는 조선시대가 여성에게 허용한 정보와 지식을 살피는 데에 유효하고, 여성의 지식형성과정과 여성지식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도 유효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에도 조상의 행적과 가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家乘類, 가문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黨爭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073).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여성에게 제공하였다. 여성에게 가문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욕망을 습득하고 조상을 현창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은 가승류를 학습하였고, 필사 및 정서를 통해 친정 가문의 이익과 욕망이라는 사적 가치를 전파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왕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서적을 편찬하였고 다시 한글로 번역하여 여성에게 제공하였다. 가문뿐만 아니라 국왕도 여성의 지식의 범주에서 "정치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여성의 독서가 "정치사"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실상과 어긋난다. 셋째, 조선시대는 왕과 왕비가 중국사 및 조선사를 여성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중국사 번역은 주로 왕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高宗은 중국의 正史가 한문으로 된 것만 있고 한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고 하였다. 趙大妃는 조선사를 번역하여 왕실 여성에게 제공하였다. 이 점을 기반으로 여성이 조선의 野史 번역본도 읽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연행록 번역은 여성의 이국에 대한 선망과 호기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여성은 번역본 연행록을 읽으며 견문의 知를 넓혔다. 여성의 연행록 독서는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쾌락과 연결되었고, 여성은 공적 가치·권력의 의도에 구속된 독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조선시대 여성의 독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범주를 넘어섰고, 여성의 지식은 점점 더 확장되고 해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주제어: 여성지식사, 한글번역, 독서, 여론 형성, 공적 가치, 사적 가치, 쾌락, 지식해방.

1. 서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여성지식사의 경로 추적을 목표로 여성의 책과 독서의 문화사를 탐색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 사회의 책과 독서의 문화사 고찰은 지식의 기원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에게 제공된 책, 여성 독자가 접한 책을 파악하고 여성지식사를 재구성하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여성의 책과 독서의 문화사를 고찰하는 것은 여성의 행동과 변화의 원동력을 이해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여성지식사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본 목표 수행을 위하여 우선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여성을 주 독자로 하여 한글로 번역된 고문헌과 여성 지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성지식사의 경로를 책과 독서의 문화사와 연계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저술과 번역, 여성을 위한 간행과 필사, 여성의 저술, 여성의 독서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한다.[1]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여 한 자리에서 해명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조선시대에 여성을 주 독자로 상정한 한글 번역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2] 여성을 주 독자로 상정한 한글 번역서는 조선시대가 여성에게 허용한 정보와 지식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피는 데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정보와 지식을 흡수하고 변화시켜가는 과정 즉 조선시대 여성의 지식형성과정, 여성의 지식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도 유효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지식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어왔다.[3] 이에 임윤지당, 강정일당, 정정일당, 김호연재, 신부용당, 빙허각 이씨 등을 "지식인"의 범주에서 탐색하여 왔다.[4] 이 연구는 대부분 여성의 저술을 대상으로 여성 지식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반면 본고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여성의 정보와 지식 형성의 과정을 남성의 한글 번역서 편찬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5]

---

1) 여성의 지식형성과정, 여성지식의 특징, 여성지식사의 경로 분석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의 독서 목록을 탐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저술을 분석하여 여성이 무엇을 읽고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성을 독자로 상정하고 저술, 간행, 필사, 번역된 책을 조사하여 여성이 이 이 책들을 얼마나 독서하였고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조선시대에 여성을 독자로 상정하고 한글로 번역된 고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2) 조선시대의 한글 번역은 경서언해, 운서언해, 교훈서언해, 의서언해, 병서언해, 불경언해, 역학서언해 등 경사자집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연구성과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종묵,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2002, 59-89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한글문헌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1-433면; 백두현, 『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 1-549면 등 참조. 이 중에는 분명 여성이 읽은 책도 읽을 터이나 본고는 여성을 주 독자로 상정하여 한글로 번역된 고문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3) 이혜순, 『(조선조 후기)여성 지성사』, 이화여대출판부, 2008, 1-414면; 문희순, 「16세기 여성지식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165-198면; 김남이, 「조선 전기 여성 주체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사례 연구—『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한 고전 여성 지식 체계의 생성 기반에 대한 시론으로서」, 『여성학연구』 28, 부산대 여성연구소, 2018, 47-85면 등 참조.

4)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기에 연구사를 생략한다.

5) 여성을 위하여 한글 번역본을 편찬한 사례는 아주 일찍부터 보인다. 수양대군이 아버지 세종의 명을 받아 어머니인 昭憲王后 沈氏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에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뽑아 번역한 『釋譜詳節』이 대표적이다.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법회를 열거나 불서를 편찬하는 것은 매우

또 그동안의 연구에서는『내훈』등 교훈서 학습을 통한 여성의 지식 형성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두어 왔다.[6] 조선전기부터 여성은『내훈』등 교훈서를 읽었는데, 여성 교훈서도 번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조선전기에 여성은 이 책과 독서를 허락받았지만 그 결과 여성은 중세의 이념과 표준지식에 갇히게 되었다. 중앙집권적인 권력은 표준지식의 보급을 위해 여성교훈서를 활용하였고 여성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 여성의 책과 독서의 문화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성은 표준지식에 갇히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며 새로운 지식사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성이 표준지식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역사, 정치, 가승, 연행록 등 史部類 한글 번역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 정치, 가승, 연행록 등 사부류 번역서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여성지식사의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여성을 독자로 상정한 번역이 있어도 여성이 이 번역서를 얼마나 읽었고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즉 여성의 독서 문화사가 동시에 분석되어야 여성지식사의 경로를 입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런데 교훈서 등의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조선시대 여성의 讀書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여성의 저술을 매개로 여성의 독서를 역 추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여성의 저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한 문제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다루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번역서를 읽은 독자와 저술을 남긴 작가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여성의 번역서 독서 문제는 후고를 기약한다. 또 여성의 정보와 지식이 항상 책과 독서를 매개로 축적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일상에서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기도 한다. 본고는 여성의 지식 형성과 책의 상관

중요한 풍속이었다.(백두현, 앞의 책, 315면) 세상을 떠난 소헌왕후는 이 책을 읽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한글로 번역하고 1447년에 편찬, 1449년에 간행한 일에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불경 번역과 여성의 독서, 여성과 한글 번역본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6) 지금까지의 조선시대 여훈서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성민경,『女訓書의 편찬과 역사적 전개: 조선시대-근대전환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1-274면 참조.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기에 여성이 일상에서의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본 연구를 위해 조선시대에 번역된 고문헌 및 조선시대에 간행된 고문헌 목록집을 활용하였고 또 근현대에 작성된 고문헌 목록 및 해제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7]

2. 家乘類 번역과 여성의 私的價値 학습

우리는 책과 독서가 인간의 일상,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일으키는 변화, 혁명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성리학 관련 책뿐만 아니라 의학, 과학, 병법 등 다양한 책들이 사대부의 일상과 문화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여성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던가? 『청규박물지』에는 저자인 빙허각 이씨가 인용한 책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서명을 일별하여 보면, 빙허각 이씨가 독서하였거나 참고한 책의 범주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을 벗어나 있다. 심지어 『청규박물지』에는 남성들의 類書 및 인용서목에 기록되지 않은 책들도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읽었던 것으로 거의 확인되지 않는 책들, 조선시대에 유통된 것으로 거의 확인되지 않는 책들의 서명까지 기록되어 있다. 빙허각 이씨가 읽었던, 적어도 알고 있었던 책의 범주가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유서 저술이 가능하였고 또 조선시대 여성 지식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여성지식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8]

조선시대 여성에게 제공된 책의 범위는 가승, 정치, 역사, 여행까지 다양

---

7)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문헌목록집인 『鏤板考』, 『奎章總目』, 『群書標記』, 『西序書目籤錄』, 『奎章閣書目』, 『書香閣奉安總目』, 『東國文獻備考』, 『三南冊版目錄』, 『五車書錄』, 『林園經濟志』「怡雲志」 소재 「京外鏤板」 등과 근현대에 편찬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1-12, 평민사, 2005; 국립중앙도서관 편, 『선본해제』1-19,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 2012 및 규장각·장서각·고려대 등 각 기관 및 대학도서관, 개인이 작성한 고서 목록 및 해제를 참조하였다.

8) 『청규박물지』 연구는 박영민, 「憑虛閣 李氏의 『淸閨博物志』 저술과 새로운 여성지식인의 탄생」,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261-295면; 박영민, 「빙허각 이씨의 고증학적 태도와 유서 저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5-41면 참조.

하였다. 조선시대 여성의 독서 범위 역시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범주를 상회하는 것이 분명하다. 조선시대는 여성 교육의 기준을 "여성은 나라의 이름, 조상의 이름을 알면 된다."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도 조상의 행적과 가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年譜, 行狀, 遺事, 家傳, 言行錄, 家乘 등을 한글로 번역하여 여성에게 제공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 가문에서 『退溪先生年譜』, 학봉 김성일 가문에서 「鶴峯金先生行狀」, 洪麟漢 가문에서 『先府君遺事』과 「先夫人家傳」과 「先夫人言行別錄」, 이광찬 가문에서 「先府君言行遺事」 및 「先府君孝友遺事」, 金信謙 가문에서 「壬寅遺事」, 남원 윤씨 가문에서 「남원윤씨가승」, 수원 백씨 가문에서 「水原白氏家狀」 등을 한글로 번역하여 여성에게 제공하였다. 洪樂遠(1743-1775)은 모친 평산 신씨에 대한 「先夫人家傳」 및 「言行別錄」을 한문으로 지은 뒤 한글로 번역하여 그의 누이에게 전해주었고, 동생인 洪樂述(1745-1810)이 부친 洪麟漢에 대해 쓴 「先府君遺事」를 初娶 부인인 德水 李氏가 번역하여 집안에 전하기도 하였다. 왕실에서도 「列聖后妃誌文」, 「列聖誌狀通紀」 등을 번역하여 왕실의 여성들에게 제공하여 왕실의 역사를 알게 하였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사대부 가문에서 여성들이 조상의 행적과 가문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한 문헌들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남성들이 한글 번역서를 여성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여성도 조상과 가문을 알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가르침이자 조상과 가문을 현창하는 일에 여성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무 부여이기도 하다. 여성에게 교훈서를 제공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조상의 업적, 가문의 역사를 읽게 하는 것은 공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일과는 차이가 있다. 엄밀하게 보면 그것은 가문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 특정 집단의 욕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승류를 제공하고 읽게 하는 것은 여성에게 조상과 가문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가치를 홍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남성과 여성은 가문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분명 그 공동체 내에서는 사적인 가치가 마치 공적인 가치와 통하는 것처럼 은폐되는 작동도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여성의

독서의 범주가 확대되어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조선시대가 조상과 가문을 중시하였기에 조상의 행적과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상의 행적, 가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年譜・行狀・遺事・家傳・言行錄・家乘 등은 주로 가문 내의 남성들, 가문 내의 남성에게 부탁을 받은 가문 외의 남성들에 의하여 한문으로 기록되었다. 이 자료는 다시 가문 내의 여성을 위하여 한글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번역된 자료를 읽고, 필사하고 정서하여 전파하고 유통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문 내의 여성들도 많았다. 여성들은 조상의 행적과 가문의 역사를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훼손된 자료를 정서하고 낡은 자료를 필사하여 조상의 행적과 가문의 역사를 전파하는 일에 나섰다. 여성은 시집을 간 이후에도 친정 여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과 며느리에게도 친정의 가승 자료를 전파하며 친정의 조상과 가문을 현창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이 지점에서 가승류 번역서에 여성의 독서를 위하여 번역하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라도 가승류 한글 번역서와 여성의 독서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李世澤(1716-1777)이 한문으로 작성된 『退溪先生年譜』(서애본)을 한글로 번역하였는데[9] 그는 가문의 여성들도 조상을 알 수 있도록 이 연보를 번역하였다. 갑술환국(1694년) 이후 영남 남인은 능력이 있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세택은 퇴계 이황의 7대손인데 정계에 진출하여 공조참판, 대사헌 등의 관직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영남 남인으로서 약해진 가문의 위상을 현창하기 위해 『退溪先生年譜』를 번역하고 여성에게 제공하였다.[10] 한글본 『퇴계선생연보』에 여성에게

9) 한글본 『퇴계선생연보』에 대해서는 경북대 퇴계연구소 편, 『퇴계선생연보국역본』, 한국출판사, 1992; 백두현, 「한글 필사본의 필사기류에 나타난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제25회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2007, 49-76면 등 참조.

10) 딸에게 가문의 행장과 족보 등을 전하여 현창하게 한 사실은 학봉 집안에서도 알 수 있다. 『학봉김선생행장』을 번역하고 권두에 필사기를 쓴 사람은 27세의 金柱國(1710-1771)이다. 그는 1770년 1월 12일에 필사하고 같은 해 10월 19일에 장정하여 다섯째 딸에게 주었다. 막내인 다섯째 딸은 孫星建(1775-1837)에게 출가를 하였는데 그때 친정 가문의 업적과 행실을 적은 한글 문헌을 품고 갔다.

제공하기 위해 번역하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책이 여성에 의해 필사, 정서,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제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한글본 『퇴계선생연보』는 李晩耆(1825-1888)의 종고모이자 최진사의 부인이 1844년에 필사한 것이다. 이만기는 퇴계의 11대손이다. 이세택이 번역을 한 뒤, 이 자료를 정서하고 필사하여 전한 것은 퇴계 가문의 딸이자 최진사의 부인인 이씨인 것이다.[11] 최진사의 부인 이씨는 59세에 친정에 갔다가 종고조인 참판공이 번역한 한글본 퇴계 선생 연보를 전사하였다. 그리고 남은 종이에 퇴계 선생의 世系, 선조의 언행록 중 뜻을 알기 쉬운 嘉言善行 등을 전사하였다. 그리고 친정의 여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들 및 시댁의 여성들에게도 친정 가문의 어른이자 조선 성리학의 대가인 퇴계 선생의 행적을 전하였다. 여기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퇴계 가문의 여성들, 최진사 집안의 여성들 사이에서 퇴계 선생의 일대기, 학문, 교육, 교유 등이 전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필사본에 이만기가 발문을 썼는데, "천추만세에 내가 우리 고모의 조카되는 줄을 누가 모르겠는가"[12]라고 하여, 조선후기에 여성이 친정의 가승 자료 필사를 통해 친정과 계속 이어지고 친정 가문을 현창하는 모습을 언급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조선시대의 출가외인 이데올르기, 여성과 친정의 관계 단절 등을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함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고로 남긴다.

이세택은 퇴계 선생의 연보뿐만 아니라 『黨化錄』[13]도 한글로 번역하여 집안 여성들에게 제공하였다. 당파가 언제 생겼고, 당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11) "둉고모 최진ᄉᆞ 부인이 친가의 오시니 ᄯᅴ예 년셰 오십이오 또 구셰시라. (…) ᄯᅴ예 칙을 매여 션죠 퇴계션ᄉᆡᆼ년보를 벗기시니 이ᄂᆞᆫ 둉고조 참판공의 번역ᄒᆞ신 ᄇᆡ라. 딜이 근근히 벗더니 계ᄒᆡ 팔월일의 뵈오려 가니 칙을 내여 보이시고 나믄 쟝의 셰계를 벗기려 ᄒᆞ시며 셰계 조고만 칙을 내여 쥬시니 우리 션군의 금부도ᄉᆞ공의 ᄡᅳᆺ신 ᄇᆡ라. (…) 조희 슈십쟝이 또 남거ᄂᆞᆯ 션조 언ᄒᆡᆼ녹 등의 가언 션ᄒᆡᆼ이 ᄲᅳᆺ 알기 쉬은 것과 고종긔 일통을 ᄡᅥ 올니나니 모경의 두고 보시며 후세 ᄌᆞ손의게 젼ᄒᆞ시면 쳔츄 만세의 내 우리 고모 족하되ᄂᆞᆫ 쥴 뉘 모라랴. 일노써 스ᄉᆞ로 위로ᄒᆞ노라." 경북대 퇴계연구소 편, 앞의 책 참조.

12) 경북대 퇴계연구소 편, 앞의 책 참조.

13) 李世澤, 『黨禍錄』, 『國朝歷年士禍錄』,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되어 영남지방 사대부 여성들에게 널리 유통되고 있었던 사실을 주목한 연구는 정우봉,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 『大東文化硏究』 109, 2020, 241-281면 참조.

밝힌 이 책은 여성의 지식이 조상의 행적, 가문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문이 처한 정치 지형, 권력의 향방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이세택은『당화록』서문에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당론이 없었는데 명종 대에 동인과 서인이 생겼다. 애초에는 특별히 다투는 바가 없었고 다만 조정에서 관직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다가 점점 과격해지더니 고질이 되어 지친이 변하여 소원하게 되고, 친구가 변하여 원수가 되어, 각각 동류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화합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14]고 하여 당파로 인해 화합을 기약할 수 없게 된 정치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세택 역시 남인의 입장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세택의『당화록』번역본은「동셔남북 편논갈니든 근본」이라는 제목으로『別下冊』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문헌을 필사한 사람은 이세택이 아니다. "신유 칠월일의 약악 슬코 견비통 고극 간신 스ᄂᆞ니 며ᄂᆞ리 ᄯᅳᆯ 돌여가며 앗겨 볼지어다. 조희 업셔 낙지 주어 글시 시죵 여일치 못타인 불가 두리 노ᄅᆞ 낙ᄌᆞ 무슈ᄒᆞ니 볼 슈 업도다. 본ᄃᆡ 잇던 ᄎᆡᆨ은 님 집 가져가고 ᄯᅩ 벗겨ᄂᆞ니라"[15]는 필사기를 통해 이세택의 번역본을 집안의 며느리와 딸들이 읽고, 필사하여 전파하였으며, 그 필사도 여러 번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상도 지방에서 당쟁에 관한 책이 남성에 의해 번역되어 여성에게 제공되었고, 경상도 지방 여성들의 독서 목록과 지식의 범주에 당쟁에 관한 책이 들어 있었다.

남인 집안에서 여성에게 당쟁 관련 서적을 읽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문이 주장하는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고 가문이 우호적인 평가를 얻도록 여성도 일정정도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여성에게 가문을 옹호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기대가 당파서 번역과 제공에 들어 있었다. 여성이 가문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우호적 여론을 형

14) 李世澤,『黨禍錄』,『國朝歷年士禍錄』,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我國之初, 古無黨論. 明宗朝有東人西人, 當初則別無所爭, 而不過朝廷間爭官職而已. 漸至高激, 便作痼疥. 至親變而爲疎, 知舊變而爲讐, 各以同類相從, 故和合無期矣."

15)『黨禍錄』번역본이「동셔남북 편논갈니든 근본」이라는 제목으로『別下冊』,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소장본에 수록되어 있다.

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면 정치적 사건, 정치적 지형도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의 가문의 역사에 대한 식견,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지식도 확장되어 갔다.

처음부터 한글로 가승류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 『옥동니션싱힝녹』(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필사본, 1책)은 李漵(1662-1723)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서는 李濯의 형이다. 이서가 어려운 사람들의 자식을 거두어 가르친 이야기, 제자들이 그의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사람들이 그를 알게 하려 하였으나 이서가 거절한 이야기, 종실인 南原君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인이 고금의 명필을 진열한 가운데 이서의 大字 36장을 米芾의 필적 위에 걸어놓은 것을 보고 중국인에게 학문이 높은 조선인 이서의 글씨라고 소개한 이야기, 제자인 윤덕겸 등이 그의 문집을 간행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불이 나서 그의 저서들이 많이 소실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은 애초에 한글로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16] 그렇다면 이익 집안에서 한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쓰기를 하였고 그 고려의 대상에 여성 독자도 있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3. 정치서 번역과 여성의 輿論 형성

사대부 가문에서 남성들이 정치적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여성에게 당파류 서적을 번역하여 제공한 것처럼 국왕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서적을 편찬하고 번역하였다.

영조의 『쳔의쇼감언해』(규장각소장, 필사본)에서도 이 양상이 잘 드러난다. 영조 대에는 역모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그 결과 토역의 정당성을 밝힌 서적이 다수 간행되었다. 戊申亂이 일어난 뒤 사건일지와 공초기록을 정리하고 토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堪亂錄』을 편찬하였다. 또 辛壬義理를 밝히기 위해 『大訓』을 편찬하였다. 乙亥獄事를 토벌한 뒤에도 『闡義昭鑑』을 편찬

16) 『옥동니션싱힝녹』에 대해서는 서종태, 『국립중앙도서관 선본 해제』X, 국립중앙도서관, 2007, 139-140면 참조.

하였다. 그런데 『천의소감』은 을해옥사뿐만 아니라 1721년(경종 1)의 世弟冊封부터 1755년(영조 31)의 나주괘서사건까지 각종 정치적 사건에 대한 忠逆義理와 영조집권의 정당성을 두루 밝힌 글이다. 영조는 토역의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던 노론과 소론 중 누가 의리인가를 확립하는 문제보다 국왕 자신의 혐의를 해소하고 국왕 자신의 의리와 명분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천의소감』은 영조의 입장을 대변하여 영조와 경종의 관계 설정, 즉위 과정의 합법성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17]

영조는 자신의 입장을 대왕대비전에도 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천의소감』을 편찬한 뒤 바로 한글로 번역하여 대왕대비전에 진상하였다.[18] 『천의소감』의 한문본과 한글본의 내용은 차이가 없다. 『쳔의쇼감언해』는 국왕 영조가 자신의 입장을 대왕대비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대왕대비를 통해 궁궐의 여성들에게 전파되기를 의도하여 편찬된 것이다. 왕의 정치적 입장이 궁궐 여성들의 독서 목록에 개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왕대비는 숙종의 비인 仁元王后(1687-1757)이다. 인원왕후는 경종 1년에 영조를 왕세제로 등극시키고, 영조가 후에 임금으로 등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따라서 영조의 명분 획득은 인원왕후의 명분 획득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영조가 대왕대비전에 진상할 언해서 편찬을 한문본 편찬 즉시 진행한 배경에도 이와 같은 관련성이 있었다. 궁궐 비빈은 정치현실과 무관할 수가 없었기에 왕실 여성의 독서 범위에 정치사가 포함되는

17) 『闡義昭鑑』에 대해서는 김백철, 「英祖의 義理明辯書 『闡義昭鑑』 편찬과 정국변화—堯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전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 33, 2010, 7-40면; 김백철, 「정조 초반 『명의록(明義錄)』과 왕권(王權)의 위상—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상의 경계」, 『대동문화연구』 95, 2016, 149-183면; 배혜숙, 「을해옥사의 참여계층에 관한 연구: 나주부 괘서사건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40, 백산학회, 1992, 187-215면 등 참조.

18) 『闡義昭鑑纂修廳儀軌』(규장각소장본). 1755년(英祖 31) 6월부터 11월까지 행해졌던 『천의소감』의 찬수과정을 기록하였는데, 11월 24일과 12월 1일의 기사에서 이미 纂修된 『천의소감』의 諺書번역을 위한 준비가 하달되었고, 12월 5일에는 이미 번역서가 진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천의소감찬수청의궤』의 1755년 11월 24일의 甘結에, "大王大妃殿에 進上할 闡義昭鑑 諺書飜譯時에 正書次義宮에 宋奎斌 등을 대령시키라"는 기록이 있고, 同年 12월 1일에 "諺書飜譯正書冊", 4일에 "諺書冊題目 書寫時", 5일에 "闡義昭鑑諺冊 令已進上" 등의 기록이 있다. 12월 5일에 이미 대왕대비전에 『천의소감』의 번역본이 正書되어 進上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얼마 뒤 한문본 간행과 함께 번역본 간행도 이루어졌다. 홍봉한이 『천의소감언해』 간행을 건의하였는데, 그는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의리의 도를 명백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세히 언해본을 내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영조가 한문본과 한글본을 간행하게 하였다. 이때 언해본의 독자로 상정한 "어리석은 백성들", "모두"에는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영조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리와 명분을 설득하고자 하였는데, 그때 "여성은 나의 의리와 명분을 지지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문본을 편찬한 뒤 바로 한글로 번역하여 대왕대비전에 올렸던 영조의 의도로 미루어본다면, 영조는 분명 이 번역서의 독자에 여성도 포함시켰을 것이다. 영조는 한글본 간행으로 더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의리와 명분을 지지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여론을 형성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사대부가문뿐만 아니라 국왕도 여성의 독서, 여성의 지식의 범위에 "정치사"가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선후기에 여성들이 정치소설, 가문소설, 군담소설 등을 읽는 최대의 독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여성들이 이러한 유형의 소설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 정치사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정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기에 가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적 번역의 현장을 살펴보면 여성의 독서와 지식의 범주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조선시대의 여성의 독서가 "정치사" 영역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실상과 맞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궁중 여성들이 읽었던 책이 사대부 가문 여성의 독서로 전파되는 경로이다. 『ᄉᆞ문대의록』(한글 필사본 3책, 장서각소장)[19]은 송시열의 春秋大義가 드러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송준길의 제자인 宋奎濂이 송시열과 윤증의 師生是非에 대한 내용을 대화형식으로 저술한 글, 權尙夏의 제자인 韓弘祚가 권상하와 懷尼是非・孝廟北伐・姜嬪獄事 등에 관해

19) 『ᄉᆞ문대의록』에 대해서는 편자미상, 『ᄉᆞ문대의록』, 문화재관리국장서각, 1971, 1-3면의 해제 참조.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글, 효종과 송시열이 북벌에 대해 의론한 글, 송시열이 숙종에게 임병양난으로 인한 수난과 모욕을 씻기 위하여 선조대왕의 「再造藩邦」 4大字와 효종대왕의 「復讐雪恥」 4字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는 것이 당대 대왕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이며 민족의 숙원임을 강조하여 올린 奏箚 등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은 대부분 정조가 동궁시절에 편찬한 『兩賢傳心錄』에 수록된 것이다. 정조는 『兩賢傳心錄』에서 "我東之宋先生, 卽宋之朱夫子也.…余在春邸, 鈔其兩相照應者若干編, 合成一書, 名曰兩賢傳心錄."(정조, 『群書標記』)이라 하여 송시열에 대한 경외심으로 『兩賢傳心錄』을 편찬하였음을 밝혔다. 정조가 『송자대전』을 간행한 것에서도 송시열에 대한 경모를 알 수 있다. 따라서 『ᄉᆞ문대의록』은 송시열의 大義精神을 궁중의 내전에서도 읽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조의 딸인 福溫公主가 청음의 9대손 金炳疇와 결혼할 때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6.25전쟁 때 유실되었다는 설이 있다.[20] 여기서 궁중 여성들이 읽었던 책이 사대부 가문 여성의 독서로 전파되는 경로를 유추할 수 있다. 『쳔의쇼감언해』의 사대부가문으로의 전파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조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쇽명의록』(2권1책, 장서각소장)은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연이어 일어난 역모사건을 진압하고 편찬한 것이다. 1777년(정조 1)에 洪相範이 부친 洪述海·강용휘 등과 공모해 자객을 궁궐에 잠입시켜 정조를 시해하려 하였고, 또 홍술해의 처 孝任이 궁궐의 掖隷들과 내통하여 정조를 저주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 洪啓能·洪相吉·李澤遂 등이 정조를 시해하고 恩全君 李禶을 추대하려 하는 등 역모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정조는 역모사건을 진압하고 金致仁으로 하여금 『續明義錄』을 편찬하여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778년 2월 한문본 『續明義錄』이 壬辰字로 간행되었다. 제1권은 1777년 7월 28일 경희궁에 강용휘 등 도적이 들었으나 체포·伏誅된 일, 홍술해의 처 효임 등이 왕을 저주한 일이 발각·복주된 일을 기록하였다. 제2권에서는 이 사건 관련 供招·狀啓·上疏

20) 편자미상, 『ᄉᆞ문대의록』, 앞의 책, 해제 참조.

文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또 홍상길・홍계능・은전군 이찬 등이 복주된 일을 기록하였다.[21] 1777년 8월 18일부터 1778년 2월 21일까지의 일이다. 정조는『續明義錄』간행을 통해 역모사건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압되었고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였는가를 기록하여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한문본『속명의록』이 간행된 뒤 정조는 바로 한글로 번역하여『諺書續明義錄』을 간행하게 하였다. 같은 해의 일이다. 한문본에 뒤이어 한글본을 간행한 것은 정조가 당시 역모사건의 결과, 정국의 상황을 백성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정조도 글을 아는 여성을 포함하여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계층을 잠재적 독자로 상정하고 한글본『諺書續明義錄』을 간행하였을 것이다. 비록『諺書續明義錄』간행 목적에 여성을 위한 번역 및 간행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천의소감』편찬 사례와 견주어 보면, 정조 역시 한글 번역본 독자에 글을 아는 여성들을 포함시켰을 것이다. 더구나 역모사건을 일으킨 자들 가운데에는 홍술해의 처 효임 등 여성도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누가 역모사건을 일으켰고, 그들이 어떻게 진압되었으며,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나를 알려주고 반역을 두려워하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 경고의 대상에서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책을 읽고 행동을 조심해야 할 독서의 주체, 왕의 권위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해야 할 주체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여성은 정치사와 무관한 존재로 남아 있기가 어려웠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집안 일 이외의 집밖의 일을 몰라야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명분이다. 조선후기에는 여성도 당대의 정치 지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 관련 지식을 학습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綸音 언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음의 반포는 한문본

21)『속명의록』에 대해서는 김백철,「정조 초반『명의록(明義錄)』과 왕권(王權)의 위상—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상의 경계」,『대동문화연구』95, 2016, 149-183면; 최성환,『영・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1-533면; 홍윤표,『國語史 文獻資料 硏究』, 태학사, 1993, 1-571면 등 참조.

과 언해본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궁중과 일반 백성들이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윤음에는 흉년으로 인해 환곡을 감면하는 내용 등 백성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았고 이는 여성의 실생활과도 매우 밀접하였다. 따라서 여성도 당연히 한글 윤음의 내용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정조가 1781년부터 1784년까지 내린 각종 윤음의 언해본만을 간추려 모은 『綸音諺解』의 존재에서도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22] 또 『加髢申禁事目』은 1788년(정조 12)에 여성들의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하여 내린 사목이다. 가체를 금하는 취지와 비변사에서 그 자세한 사목을 정하여 일정 기한까지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傳敎, 이러한 전교를 내리기까지의 간략한 경위와 여러 대신들이 진술한 의견을 담고 있는 擧條, 그리고 실제의 시행 세칙을 포함하고 있는 事目으로 구성되어 있다.[23] 이 사목은 여성을 대상으로 내린 것이기에 분명 여성도 이 사목을 보았을 것이다. 조정의 정책을 밝힌 윤음이나 사목의 한글 번역본 제공 역시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 및 독서의 방향과 관련이 깊다.

4. 중국사 번역과 여성의 公的價値 학습

『뎡ᄉᆞ긔람』(장서각 소장본, 필사본)은 중국의 天皇氏부터 明나라 말까지의 역사를 다양한 서적에서 뽑아 한글로 번역하고 편찬한 80권 80책의 거질이다. 이 거질 번역은 글을 안다고 하여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뎡ᄉᆞ긔람』도 왕명에 따라 대신이 수행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즉 고종의 명에 따라 이조판서를 지낸 尹用求(1853-1939)가 5년에 걸쳐 번역을 하여 1909년에 완성한 것이다. 윤용구는 순조의 딸인 德溫公主의 양자로 시서화에 다재다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24] 고종은 왜 윤용구에게 중국의 역사를

22) 『綸音諺解』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규장각,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1, 1993, 298-299면, 서울대학교규장각 참조.

23) 『加髢申禁事目』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규장각편,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4, 1993, 475-477면 참조.

24) 김목한 외, 『장서각한글자료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1-671면; 이옥이, 「윤용구의 정사기람 서체 연구-일중 한글서체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13,

뽑아 번역하게 시켰을까? 윤용구는 서문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복유(伏惟) 아태황제(我太皇帝)폐하 겨올샤 님어(臨御)하올신디 ᄉᆞ기(四紀)의 우문(右文)ᄒᆞ여 다ᄉᆞ리샤 뎡녕(呈營)과 뎐녜(典禮)를 ᄒᆞᆫ갈노 경ᄉᆞ(經史)로 표젹(標的)을 삼으시고 일즉 건신(近臣)에게 일너 ᄀᆞᆯᄋᆞᄉᆞ듸 "고금(古今) 국가의 흥체(興替)와 인ᄉᆞ(人事)의 득실(得失)이 ᄒᆞᆫ갓 군신(君臣)만 맛당이 감계(鑑戒)ᄒᆞᆯ 뿐이 아니라 안으로 후비(后妃)와 녀관(女官)이 또한 다 익혀 알면 거의 비익(裨益)ᄒᆞᆯ 거시 잇스되 다만 우리나라 문자(文字)가 한문(漢文)과 언문(諺文) 두 길이 잇고, 듕국의 뎡사(正史)는 당초에 언셔(諺書)로 긔록(記錄)ᄒᆞᆫ 거시 업고 다만 패잡쇼셜(稗雜小說)만 잇셔 거즛으로 참을 어즈레여 도로혀 의리(義理)에 해로오니 짐(朕)이 항상 겸언(箝言)ᄒᆞ여 ᄒᆞ노라"ᄒᆞ시고 인(因)ᄒᆞ여 쳔신(賤臣)에 명(命)ᄒᆞ샤 태고(太古)로부터 원명(元明)까지 이르기 ᄒᆞᆫ갈노 ᄉᆞ승(史乘)을 좇아 국언(國言)으로써 번역(飜譯)ᄒᆞ여 푸러셔 ᄒᆞ여곰 뉵궁(六宮)의 편남(便覽)을 지으라 ᄒᆞ올시니[25]

고종이 『뎡ᄉᆞ긔람』(『正史紀覽』)을 한글로 편찬하게 한 이유는 중국의 역사를 궁궐의 여성들 즉 후비와 여관들도 다 익혀서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고종이 궁궐의 여성들에게 중국의 역사서를 알게 하려는 이유는 고금의 국가의 흥함과 망함, 인사의 득실이 임금과 신하뿐만 아니라 궁궐의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고종이 중국의 역사, 그 중에서도 특히 나라의 흥망과 인사의 득실과 관련된 사건들을 여성들도 익히고 감계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음을 보면, 고종은 여성의 역사 교육의 기준을 매우 넓고 깊게 제시한 국왕이다. 물론 고종의 말은 궁궐의 후비와 여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영조·정조 연간에 있었던 한글 서적의 편찬과 민간 전파를 생각하여 보면, 궁중의 후비와 여관들만 읽은 것이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여성 교육의 기준이 고종 때에 갑자기 확대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고종의 말을 통해 볼 때, 궁궐의 빈과 여관들도 한문을 수월하게 읽을

1-88면 등 참조.

25) 윤용구, 『뎡ᄉᆞ긔람』(장서각 소장본, 필사본). 『뎡ᄉᆞ긔람』에 대해서는 김목한 외, 앞의 책, 482-485면; 이광호 외,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163-245면; 박정숙, 「사후당 윤백영의 업적 및 한글서예 작품 특징 분석」, 『조형교육』 61, 한국조형교육학회, 2017, 85-116면 등 참조.

수 없었다. 그런데 중국의 정사는 애초에 한글로 기록된 것이 없었기에 여성이 중국역사서를 읽으려면 한글로 번역된 책이 필요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종이 중국의 정사가 한문으로 된 것만 있고 한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고 한 점이다. 고종은 궁궐의 빈과 여관이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였고, 궁궐의 빈과 여관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도 왕의 역할이라고 말하였다. 또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정사 한글 번역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글로 된 역사서인 패잡소설이 있기는 하였지만 고종의 관점에서 이 패잡소설은 참을 어지럽히고 의리에 해로운 거짓이었기에 여성들에게 패잡소설이 아닌 正史를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결과 중국사 자료를 뽑아 한글로 번역한『뎡ᄉᆞ긔람』이 편찬되었다.

> 중국천지 개벽 후 천황씨부터 명나라 말까지 한문으로는 정직한『사기』와 소설이며 각종 기사가 있으나 국문으로는 패잡한 소설 밖에 없으니 고종 태황제 게오서 이조판서 윤공(용구)께 말씀 하시되 한문을 궁중 여인들이 알아 볼 수 없으니 국문 없는 것이 유감이라 하오시니 윤공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정직한 사기 팔십 권을 만들어 바친 것이니 보는 사람이 지식이 높아지나이다. 서기 일천구백 칠십년 경술 중추 상완 사후당 윤백영 팔십삼세 해제.[26]

윤용구는 고종의 의도를 받들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드디어 완성하였다.『뎡ᄉᆞ긔람』이 이루어진 61년 후인 1970년에 윤용구의 딸 윤백영은 83세에 서문을 썼다. 윤백영은 고종의 명을 받아 윤용구가 번역한『뎡ᄉᆞ긔람』을 여성들이 독서한 것을 두고 "보는 사람이 지식이 높아지다"로 이해하였다. 즉 윤백영은 고종 당대에 있었던 아버지의 편찬, 여성의『뎡ᄉᆞ긔람』독서를 여성 지식의 고취 문제로 이해하였다.

『력대긔년』[27]도 중국의 역사를 편찬하여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正祖가

26) 김목한 외, 앞의 책, 482-485면.
27) 編者未詳,『력대긔년』(장서각)

동궁에 있을 때 각종 역사서를 참고하여 편찬하고 1773년(英祖 49)에 開印한 『歷代紀年』 제2책(卷之三)의 한글 번역본이다.[28] 한글 번역본은 한문본의 완역에 가깝다. 한문본은 중국 상고시대 三皇五帝부터 명나라 永曆연간(1647-1661)까지 역대 황제와 왕들의 일람을 간단하게 정리한 책이다. 그런데 한글본에는 南朝 宋 이전의 역사가 없다. 한글본 표제 아래에 '單'이 있음으로 볼 때, 번역을 '남조 송부터 명나라까지'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사본에 필사기가 없어 번역자, 필사자, 필사연대 등 번역 및 필사 관련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장서각 소장 한글 번역본은 2종인데 모두 정갈한 궁체로 필사되었다. 고종이 윤용구에게 중국의 정사를 뽑아 한글로 번역하여 왕실 비빈과 여관에게 제공하라고 한 것을 미루어볼 때, 이 책도 정조가 왕실 여성을 위해 번역하게 한 것으로 우선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三國志』 번역서인 『삼국디』(필사본, 17권 17책, 국립중앙도서관소장)[29]도 읽었다. 이 책에는 권마다 말미에 "셰 동치 칠년 무딘 츄칠월 시즉ᄒᆞ여 신미 ᄆᆡ츈 원월일 필ᄒᆞ다. 샹치 말고 ᄃᆡᄃᆡ 우젼ᄒᆞᆯ디어다. 딘쳔 논실 신ᄉᆞ간 ᄃᆡᆨ 칙"이라는 필사기가 있다. 동치 7년은 1868년이고 신미는 1871년이다. 3년에 걸쳐 필사가 완성되었다. 또 17책 말미에는 "세 무딘 동치 칠년 츄칠월 시자ᄒᆞ여 신미(1871) ᄆᆡᆼ츈 원월일 필ᄒᆞ다. 언셔칙이다. 허황ᄒᆞ되 삼국지ᄂᆞᆫ 딘당 젹실한 사젹이기 번셔ᄒᆞ여스며 나도 칙벽이 남의게 디디 아니ᄒᆞ나 비록 언셔칙이나 공녁의 호ᄃᆡᄒᆞ기 남자의 샤셔ᄂᆞ 다르디 아니니 ᄉᆡᆼ각ᄒᆞ면 우읍도다. 오십의 쓰노라니 안혼한 듕 틈틈이 밤의도 더러 쎳다. 나의 자숀덜은 ᄂᆡ 공녁을 ᄉᆡᆼ각ᄒᆞ여 부ᄃᆡ 샹히 말고 ᄉᆞᆯ들 나도 남의 가문의 쥬지 말고 대대 유젼ᄒᆞᆯ지어다. 광쥬 니씨 셔ᄒᆞ노라."라는 필사기가 있다. 광주 이씨가 1868년에 필사를 시작하여 1871년 봄에 필사를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30] 그녀는 50대에 17책의 방대한 중국 역사서를 필사하여 읽었다. 또 광주 이씨는 이 책이 비록 한글본이지만 남성들의 史書와

28) 한글 번역본은 65장본, 83장본, 79장본 3종이 있는데 모두 표제가 "歷代記年"이라고 되어 있다.
29) 『삼국디』(필사본, 17권 17책, 국립중앙도서관소장)
30) 『삼국디』에 대해서는 박재연,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 11, 국립중앙도서관, 2009, 96면 참조.

다르지 않다고 자부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공력을 생각하여 책을 상하게 하지 말고 딸들이 시집을 가도 남의 가문에 주지 말고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기를 자손들에게 당부하였다. 자신의 필사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십구ᄉᆞ략언히』도 1772년 경상감영 간행본, 1804년 목판본, 1772년 중간본, 영조 때 간행본 등이 다수 전하고 있어 여성의 독서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여성에게 중국 정사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읽게 한 것을 보면 조선의 역사서도 제공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선의 역대 왕의 역사를 한글로 번역한 편년체 역사서인 『국됴고ᄉᆞ』(장서각소장, 5권 5책, 編者未詳, 궁서체 필사본), 徐文重(1634-1709)이 조선 왕조의 역사를 뽑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한문본 『朝野記聞』을 후대에 한글로 언해한 『됴야긔문』(장서각소장, 23권 23책, 필사본),[31] 尹得運(1693-1767)과 尹得載(1697-1758) 형제가 조선시대 태조부터 숙종까지를 다룬 야사 식의 한문본 『朝野僉載』를 한글로 언해한 편년체 역사서 『조야쳠ᄌᆡ』, 金載久(1726-1791)가 조선의 태조부터 영조 초까지 다룬 야사 형식의 한문본 『朝野會通』을 언해한 편년체 역사서 『됴야회통』 등은 한문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32] 이 책들에 여성을 위해 번역하였다는 분명한 기록이 없어 단언할 수는 없으나 중국 역사서를 번역하여 여성에게 제공한 사례를 통해 볼 때 한문을 모르는, 한글을 아는 남성과 여성에게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한글본 조선역사서의 독서 주체에 여성도 포함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神貞王后 趙大妃가 『야ᄉᆞ』를 저술하여 여성에게 번역본 조선사를 제공한 것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야ᄉᆞ』[33]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저자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책 사이에 간지가 한 장 끼워져 있는데 저자를 "神貞王后趙氏親書國文野史"라고 썼다. 神貞王后 趙氏(1808-1890)는 바로 翼宗으로 추존된 효명세자의 비이다.[34] 또 간지에서는 "筆法이 珠玉을

31) 박인호, 『됴야기문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346면 참조.
32) 김목한 외, 앞의 책; 이광호 외,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163-245면 등 참조.
33) 『야ᄉᆞ』에 대해서는 최우영,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Ⅳ, 평민사, 2005, 87-90면 참조.

꾀야논 듯하여 아름답고 선명하여서 李朝宮體國文이라는 것으로 根本이 되는 眞實일 것임"이라고 하여, 이 필사본을 조대비의 친필로 보았다.

> 神貞王后 趙氏親書國文野史.
> 文祖大王配시고 豊恩府院君趙萬永의 따님이시니 文祖大王은 壽가 겨우 二十二로 昇遐하사 高宗己亥에 追尊하였고 憲宗이 嗣位하시니 趙大妃께서는 垂簾하시고 聽政하시며 國事를 分付指揮하셨으니 文章과 筆法이 兼備하신 王妃로 李朝歷代王妃로서는 宣祖大王配位이신 仁穆大妃金氏와 神貞王妃趙氏를 같이 치게 된다. 壽는 八十三이시고 楊州綏陵이시니 筆法이 珠玉을 꾀야논 듯하여 아름답고 선명하여서 李朝宮體國文이라는 것으로 根本이 되는 眞實일 것임.[35]

『야ᄉᆞ』의 내용은 연산군조에서 시작하여 인조조에서 끝이 난다. 저자는 역사적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인물에 대해 포폄도 하였다. 『야ᄉᆞ』에 끼워진 간지를 보면 "憲宗이 嗣位하시니 趙大妃께서는 垂簾하시고 聽政하시며 國事를 分付指揮하셨으니"라고 하여 조대비가 직접 정사에 관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실제 조대비는 수렴청정을 하였고 흥선군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왕위에 올린 인물로 정치 현장에서 직접 깊이 관여하였다.

조대비는 자신의 시아버지, 남편, 아들, 양자가 왕이 되고 죽는 모습과 대왕대비 김씨의 수렴청정, 자신의 수렴청정, 흥선대원군의 실권 등을 거치며 궁중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 조대비는 1819년 12세에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궁에 들어가 1890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대비는 겨우 10여 세를 넘긴 나이에 궁에 들어가 궁에서 70여 년을 살며 크고 작은 사건을 다양하게 겪었다. 그녀는 1827년 20세의 나이에 헌종을 낳았으나, 1830년 강력한 왕권을 꿈꾸며 대리청정을 하였던 남편 효명세자가 27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었다. 그 이후 헌종, 철종, 고종까지, 순조와 익종을 포함하면 5명의 왕이 등극하고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1834년에는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너무 어려 순조의 비인 대왕대비 김씨

34) 조대비, 『야ᄉᆞ』(연세대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1책).
35) 조대비, 『야ᄉᆞ』(연세대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1책).

의 수렴청정 아래에 있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그런 헌종도 1849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어 철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또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대비가 된 그녀는 흥선군 이하응의 아들을 철종이 아니라 남편인 익종의 양자로 삼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자신이 수렴청정을 하였다. 안동김씨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권은 흥선대원군에게 넘겼다. 그 후 1890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趙大妃께서는 垂簾하시고 聽政하시며 國事를 分付指揮하셨으니"라고 한 것처럼 조대비는 직접 정사에 관여하며 정치적인 상황과 부딪치며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대비는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야ᄉᆞ』를 지어 자신의 견해를 풀어놓았을 것이다. 조대비의 의도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 취사선택되고 포폄되었을 것이다. 『야ᄉᆞ』의 독자는 일차적으로 궁궐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이 책이 궁궐 밖으로 전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추적이 더 필요하다.[36] 조대비의 『야ᄉᆞ』 편찬을 통해 조선시대의 여성들에게 조선의 역사서 번역본이 제공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 연행록 번역과 여성의 호기심 발현

姜浩溥(1690-1778)는 부친과 사제지간인 부사 李世瑾의 천거를 받아 從行人으로 연행을 따라 갔다. 그의 나이 38세 때의 일이다.[37] 당시 강호부는 홀로 계실 어머니께 죄송하여 연행을 경솔하게 결정하였다고 자책하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강호부에게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하고 또 아들의 연행이 부

36) 조대비가 『야ᄉᆞ』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왜 그렇게 서술하였는지, 다른 야사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등을 분석하여야 조대비의 저술 의도, 『야ᄉᆞ』의 의의, 『야ᄉᆞ』 독자의 수용의 특징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고 여성의 저술, 여성의 독서의 실체도 깊이 있게 드러날 것이다. 이 부분은 과제로 남긴다.

37) 姜浩溥의 연행과 『桑蓬錄』(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 연구는 고운기, 「한글본 燕行錄의 제작 양상—새 발굴 자료 桑蓬錄과 乘槎錄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2004, 5-28면; 정내원, 「漢譯本 연행록 『桑蓬錄』의 특징과 漢譯 양상 연구」, 『동양고전연구』 55, 동양고전학회, 2014, 147-172면 참조.

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고 하며 연행에서 돌아와 자세히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 먼 이국으로 여행을 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더구나 강호부는 서자였기 때문에 소실 출신 어머니의 기쁨이 더 컸을 수가 있다. 안동김씨 김성급의 딸이 아버지 강석규의 소실이었다. 한편 어머니는 이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와 발달된 문명을 경험할 아들이 부럽기도 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남성이 집 밖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반면 여성은 집 밖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여성의 여행에 대한 선망, 호기심, 욕구를 키웠을 것이다. 여행은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차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이 여행에 대한 선망, 호기심, 욕구를 가졌다는 것은 차별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자 반항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어머니가 자신의 청나라 여행을 기뻐하고 또 부러워하였음을 안 아들은 한문으로 저술한 연행록(『桑蓬錄』, 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38]을 한글로 번역하였다.(『상봉녹』, 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 아들이 어머니가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한 것은 연행을 다녀온 지 13년 만인 1741년 12월 22일 즈음의 일이었다.[39] 어머니는 오랜 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아들의 연행록을 읽을 수 있었다. 여기서 강호부가 13년 만에 한글로 번역을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들이 연행을 다녀온 지 13년이 지났어도 연행록을 번역해야 했던 것은 어머니의 연행에 대한 부러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38) 현존 한문본 『桑蓬錄』(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에는 "崇禎甲申後百九十七年己亥에 증손 在應이 한글본을 가지고 번역하였다."는 서문이 있다. 본래 한문본이 있었고 그것을 번역하여 한글본을 만들었는데, 원본인 한문본이 망실되어 다시 한글본을 한역하여 한문본을 만든 것이다. 1839년(헌종 5)의 일이다.(姜在應, 「編述四養齋桑蓬錄序」, 『桑蓬錄』, 연세대중앙도서관 소장)

39) 姜浩溥, 『상봉녹』 권2, 1727년 12월 22일, "내 ᄌᆞ친을 위ᄒᆞ야 븍경일긔ᄅᆞᆯ 번역ᄒᆞ다가 이 ᄆᆞᄃᆡ예 니ᄅᆞ러ᄂᆞᆫ 녜날 소견이 다만 문인의 입버릇과 거ᄌᆞ의 글 체단으로 ᄡᅥ 용이히 말을 셰워 강인ᄒᆞ야 의리ᄅᆞᆯ 의논ᄒᆞᆫ 줄을 ᄭᅵ닷ᄅᆞ니 대개 내 어려셔브터 글을 닐글제 새 의논을 됴화ᄒᆞ고 긔특ᄒᆞ믈 구ᄒᆞᄂᆞᆫ 벽이 ᄇᆡ소긔 빗겨 이셔 믄득 ᄒᆞᆫ 병통이 되니 (…) 신유 졍월 이십이일에 ᄯᅳ라 ᄡᅳ노라."("余爲慈氏諺譯此錄, 至此段, 覺得當時所論, 只以文人口氣·擧子文體, 容易立言, 强說義理也. (…) 辛酉正月二十二日追書) 辛酉年은 1741년으로 姜浩溥가 연행한 지 13년 뒤이다. 이를 통해 추정해 보면 한글본 桑蓬錄은 1741년 경에 작성 중이었을 것이다. 고운기, 앞의 책; 정내원, 앞의 책 참조.

어머니는 직접 여행할 수 없는 먼 이국의 산천과 풍속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문화와 발전된 문명에 대한 부러움을 거두지 않았고 아들은 그 부러움을 책과 독서로 채워드리고자 번역을 하였다.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한글 번역본 연행록이 여성의 선망, 호기심, 욕구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여행에 대한 선망, 이국에 대한 호기심,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아들 강호부의 번역의 출발점이었다. 조선시대의 여성의 호기심은 응원을 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더구나 여성의 지적 호기심이 도덕, 덕행과 관계된 교훈서가 아니라 여행과 즐거움을 기록한 책에 있었다면 이는 허용된 지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권위를 의심하고 회의를 유발하는 호기심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한 부러움과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감추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의 그 부러움과 지적 호기심이 아들로 하여금 연행록 번역을 완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부러워하는 마음과 지적 호기심을 낯설고 위험한 것,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시켜드려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남성이 연행록을 번역하여 여성에게 읽게 하는 것은 여성의 개인적인, 사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물론 여성의 연행록 독서에도 집안의 어른이 연행을 다녀왔으니 그 경험을 읽어 가문의 역사를 알고, 조상의 업적을 현창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강호부가 연행록을 번역한 것은 어머니께서 연행을 부러워하시던 그 마음을 알고 순전히 어머니의 개인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 어머니는 연행록 독서를 통해 견문의 知를 익히고 넓혔을 것이다. 이 독서가 즐거움, 쾌락만을 위한 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독서가 공적인 가치인 도덕과 행실을 닦기 위한 독서, 권력자인 왕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고 그 여론을 형성하도록 동원된 독서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성은 독서를 통해 개인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얻었고, 개인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독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공적 가치, 권력의 의도에 구속된 독서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여성이 소설의 주 독자가 되고 작가가 되는 과정을 해명하는 것과도 통할 듯하다. 소설을 읽고 즐거움, 쾌락을

느끼는 것은 고정된 지식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아들이 어머니의 낯설고 위험한 호기심을 인정한 결과 여성의 독서는 공적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에게 한글 번역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지적 능력의 표상인 책을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 번역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기존의 주어진 지식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기도 하였다. 그 근거는 조선후기에 여성의 여행 관련 기록이 다수 출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성의 집 밖에서의 활동은 금기사항이었으나 어느 덧 조선후기에는 여성의 여행 기록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세기 전반에 원주 출신 기생 금원이 14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졸라 겨우 승낙을 받고 남장을 한 뒤 한양을 거쳐 금강산을 유람하였고 그 경험을 『호동서낙기』로 썼다.[40] 이 『호동서낙기』는 금원의 친구들이 돌려가며 읽고 서평을 붙였다. 여성들이 여행을 갈망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여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금원이 어린 나이에 금강산을 여행하고 싶어 부모를 졸랐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금강산 여행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성들은 어떻게 여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어떤 계기로 여행을 갈망하게 되었을까?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동쪽 원주로 여행을 온 사대부 가운데에는 이미 금강산 유람을 다녀왔거나 이제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 누군가는 금원에게 금강산 여행을 자랑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또 금강산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주었을 것이다. 금원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금강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금강산 여행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며 정보를 수합하고 여행을 계획하였을 것이다. 결국 금원은 남장을 하고 금강산 여행을 실행하였고 「호동서낙기」라는 장편의 기행문을 남겼다.

또 금원이 이 여행기를 남겼다는 것은 그가 조선시대에 널리 유행하였던 유산기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금원의 유산기 문학에 대한 정보 획득도 아마 사대부들의 글을 듣고 읽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조선시

40) 이혜순, 「19세기 여성비평문학의 출현과 그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2000, 55-80면 등 참조.

대 사대부가 다양한 명산을 유람하고 유산기를 남기는 것은 일종의 유행처럼 퍼져 있었고 금원도 그 모습에서 「호동서낙기」라는 글쓰기를 할 계기를 얻었을 것이다. 또 「호동서낙기」에 대해 금원의 기생 혹은 소실 출신 친구들이 발문을 쓰고 비평을 하였다는 것은 그 친구들 역시 여행에 대한 선망과 유산기 문학의 사회적 위상을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금원의 금강산 여행과 「호동서낙기」 저술은 조선시대의 유산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모습이지만,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이 금기를 깨고 고정된 지식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지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원뿐만 아니라 황진이도 계약 결혼을 하고 금강산 여행을 하였다. 황진이는 금강산 여행을 유산기나 다른 형태의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으나 금강산에서의 황진이의 행적을 보면 그 역시 조선시대의 금강산 여행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41] 은진 송씨도 공주 여행을 『금행일기』로 남겼다.[42] 또 신부용당처럼 금강산 여행을 최고의 꿈으로 선망하였으나 결국 실행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대부가문 여성도 있었다.[43] 오빠인 신광수・신광하・신광연 삼형제가 당대의 빼어난 문학가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가였는데 특히 신광하(1729-1796)는 광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았던 인물이었다. 이 모습을 본 신부용당도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대부 가문의 여성 신부용당에게 금강산 여행의 꿈은 끝내 실현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었다. 신광수 집안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부용당의 금강산 여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부용당은 안타까운 심정을 장편의 한시로 남겼다. 신부용당의 한시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지식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행위였다. 여성의 여행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은 고정된 지식에

41) 여성들은 견문의 지를 쌓아가며 자신의 저술을 남겼다. 여성들은 비록 국외로 여행을 가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국내 여행을 기록하였고(의령 남씨의 『동유기』), 자신의 삶을 기록하였으며(『자기록』), 자신이 겪은 전란의 체험을 기록하였다(『병자일기』, 『강도일기』), 그리고 빙허각 이씨는 유서인 『청규박물지』를 저술하였다.

42) 백순철, 「금행일기(錦行日記)와 여성의 여행체험」, 『한성어문학』 22,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2003, 59-79면 등 참조.

43) 신부용당 연구는 박영민, 「신부용당(申芙蓉堂)의 삶과 문학 연구」,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411-444면 등 참조.

대한 반항,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요구하는 위험한 행위였다.

이후 남성의 한글 번역본 연행록을 전파하고 유통한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었다.[44] 여성의 정보에 대한 요구, 지식에 대한 갈망에서 출발한 한글본 연행록은 딸, 며느리 등을 통해 전파되었다. 여성들은 한글본 연행록을 필사, 정서하여 전파하고 유통시키며 자신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표현하였다. 여성의 정보 수합의 과정과 확산, 향후 지식으로 체계화되고 저술되는 과정의 한 모습을 설명하여 준다.[45]

강호부가 번역한 『상봉녹』도 집안의 딸들이 많이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46] 상권에서 발견된 쪽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이 『상봉녹』은 우리 고조부 四養齋公이 연행하여 겨우실 때에 중국 산천이며 풍속을 연로의 피곤하심을 잊으시고 태부인께 보심이 하랴고 자세히 낫낫이 기록하신 책이라. 자손들이 차차 전하여 내려오더니 니해미댁 고모긔겨만대의 또 한번 보갯노라 보내라 하시기 보내엿더니 그 집의 화재를 만나 회록 중의 초 권이 그 곳에 들어 소멸하니 다른 책과 다르니 채울 수도 없고 다시는 자손들이 초 권은 못보디시니 마음의 억색하고 감창하기 억제키 어렵다. 이 두 권이나 잘 간수하여 없어지지 아니캐 하여라."

원손 강현회가 무술년에 쓴 글이다. 강호부가 어머니를 위해 번역한 『상봉녹』은 4대손인 강현회 당시에도 집안에서 읽혔다. 이 책을 고모가 "또 한 번

---

44) 한글본 연행록뿐만 아니라 한글본 서적의 필사기, 독서기를 보면 여성들의 필사가 많다. 백두현, 앞의 글 참조.

45) 『燕行錄』(고려대학교소장본)은 간사자 미상 한글본 연행록인데 필사기에 "갑오졍월십삼일 시작ᄒᆞ여 이월초이일유봉와 윤쇼제 필서ᄒᆞ로라"고 밝혔다. 갑오년은 1834년으로 추정된다. 필사자는 윤소저이다. 마지막장에는 "이 책 글씨는 노성 교동 윤씨의 글씨니 앗겨볼지라"라는 독후기가 있다. 이 책 역시 여성이 필사한 것이다.

46) 한영균, 「한글 연행록류의 서지와 산출 시기」, 『열상고전연구』 49, 열상고전연구회, 67-94면에서 한글본 연행록의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朝天日乘』(1624), 『됴텬녹』(1625) 『연힝일긔』(1712), 『상봉녹』(1727), 『셔원녹』(1765), 『을병연힝녹』(1766), 『기축연힝녹』(1770), 『승사록』(1790), 『경술열하기』(1790), 『휴당연힝녹』(1793), 『무오연힝녹』(1798~1799), 『연암열하일긔』(1780), 『븍연긔힝』(1813), 『연힝녹』(1858) 등이다. 한영균은 산문 한글 연행록 14종, 이본을 합하면 20종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외에도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燕行錄』 등 새로운 자료 발굴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보겠노라 보내라 하시기 보내엿더니"에서 고모가 시집을 전후하여 이미 읽었는데, 시집을 간 뒤에도 빌려서 읽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집가기 전의 딸뿐만 아니라 시집 간 이후의 딸들도 친정의 책을 빌려 읽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책을 빌려 간 고모 댁에 화재가 나서 첫 권이 불에 탔다고 하였다.[47]

홍대용 집안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홍대용은 1765년 동지사 사행에 서장관으로 참여한 숙부 홍억의 자제군관으로 동행하여 『을병연행록』[48]을 한글로 저술하였다. 李源朝는 "조선일보 학예란"에서 "『을병연행록』은 가전하는 말에 의하면 담헌이 어머니께 보여 드리기 위하여 한글로 지었으며"라고 하였다. 또 최익한은 홍대용의 후손의 말을 빌려 "담헌이 귀국 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직접 쓴 것을 담헌의 따님이 필사하고 이를 직접 감수하였다."[49]고 하였다. 여기서 아들이 어머니의 독서를 위해 저술을 하고 손녀가 필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그 손녀도 아버지의 저술을 필사하였으니 읽은 것이다. 홍대용 집안의 어머니, 아들, 손녀 3대가 연행록 저술, 필사, 감수, 독서에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 후 1830년 8월 24일에 홍대용 집안에서는 또 한번 여성들이 연행록을 필사하고 정서한 일이 있었다. 『담헌연행록』(숭실대학교소장본) 10책 말미에 있는 담헌의 며느리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庚寅八月念四日畢書
본젼(本傳)이 다 상(傷)ᄒᆞ야 젓사온 슈적(手迹)이 업서지옵난 줄 답답 또 한 벌 벗기랴 경영(經營)터니 년산지장(連山之藏) 장디(壯紙)와 자근 아희 구일제(九日製)

47) 고운기, 앞의 글 참조.
48) 19세기에 왕실 서고였던 大畜關의 書目에서도 『을병연행록』 20책이 확인된다. 『大畜關書目』(규장각 소장)에 기록된 한글본 도서들이 延慶堂의 『諺文冊目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대축관의 책들이 후에 연경당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대축관에는 『을병연행록』 외에도 『乘槎錄』의 한글 번역본과 『日東壯遊歌』가 소장되어 있었고, 『燕彙』 20책과 『稼齋燕行錄』 6책도 소장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궁중 여성들이 한글로 쓰인 해외 여행 기록들을 즐겨 읽었고, 주요 한문 연행록 또한 섭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종묵, 앞의 글 참조.
49) 채송화, 「『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 『민족문학사연구』 55,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427-461면 참조.

> 상격지필(賞格之筆)노 시작하야 슈 년 만의 이루니 집안 귀한 책을 두 아들의 노득지필(所得紙筆)노 일운 일 내 마음의 기특 귀하고 두 며느리 글시도 들고 시종(始終)은 내가 써시니 갓득 졸루(拙陋)한 글시 뉵팔노필(六八老筆)의 성자(成字)를 못하야시나 일운일 깃브다[50]

경인년은 1830년이다. 홍대용의 며느리는 8월 24일에 정서가 완료되자 정서 과정을 기록하였다. 시아버지 홍대용의 한글본 연행록이 훼손되자 담헌의 며느리는 조상의 수적이 없어질까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한 벌을 정서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큰 아들이자 홍대용의 손자인 明厚가 현감으로 있던 連山의 종이와 작은 아들 良厚가 과거시험을 본 賞格之筆로 시작을 하였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글씨를 썼고, 평산 신씨 자신도 필사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였다. 홍대용의 며느리는 이 작업이 두 아들이 지필을 대고, 두 며느리와 자신이 글씨를 써서 합작하여 완성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홍대용의 며느리인 평산 신씨의 68세 때의 일이다. 한글본 연행록을 필사하고 정서하여 전수한 것은 집안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51]

이 필사본 연행록의 말미에는 홍대용의 손자인 良厚가 折杭文士에게 보낸 편지와 이에 답한 반정균의 아들 潘恭壽가 보낸 편지도 번역되어 있다. 그 번역본의 끝에는 "절항쥐 왕복 편지롤 ᄌᆞ교ᄅᆞᆯ 듯ᄌᆞ와 번녁ᄒᆞ야 년산쳑실의셔 을병연행녹 끝ᄒᆡ 쓰다, ᄎᆞ손 냥후 배셔"라고 맺고 있다 ("절강성 항주와의 왕복 편지를 慈教를 듣고 번역하여 連山冊室에서 을병연행록 끝에 쓰다.")[52]는 필사기가 있다. 여기서 洪良厚가 할아버지인 홍대용의 옛 친구의 후손들이 절강성에서 보낸 편지를 번역하였는데, 이때 어머니인 평산 신씨 즉 홍대용의 며느리의 가르침을 받아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홍대용의 며느리가 훼손된 시아버지의 연행록을 읽고 정서하고 전파하는 일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중국 문사들의 교유관계를 잘 알고 자식들에게 알려

50) 소재영 외 주해,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1-842면 참조.
51) 유만주의 『흠영』을 보면, 그 집안 여성들이 『玉麟夢』, 『玩月會盟宴』 등 한글 소설들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姜浩溥의 연행록인 『桑蓬錄』 등을 읽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대부 여성들은 소설뿐 아니라 연행록의 독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2) 소재영 외 주해, 앞의 책 참조.

줄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홍대용과 중국 문사들의 교유관계는 당대에 국경을 초월한 학문적 동지로 의의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 학문적 동지의 관계를 증언하고 후손에게 전하는 역할을 여성인 평산 신씨가 한 것이다. 평산 신씨는 집안 어른의 외국인과의 교유관계의 실질을 깊게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였다. 연행록을 번역하게 한 여성의 요구, 여성의 연행록 독서 및 필사, 연행록 전파는 여성의 지식이 점차 고정된 지식에서 해방되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독서는 여성의 지식의 확장을 잘 보여준다.

6. 마무리

조선전기부터 여성을 독자로 하는 서적의 저술, 필사 및 간행, 한글 번역 등의 작업이 있었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그 작업은 확대되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지식이 확장되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그 배경에는 여성의 지식에 대한 요구, 여성에게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지식사의 경로 추적을 목표로 여성의 책과 독서의 문화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는 조선시대에 여성을 독자로 하여 한글로 번역된 史部類 고문헌과 여성 지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여성을 독자로 상정한 한글 번역서는 조선시대가 여성에게 허용한 정보와 지식을 살피는 데에 유효하고, 여성의 지식형성과정과 여성지식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도 유효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에도 조상의 행적과 가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家乘類, 가문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당쟁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여 여성에게 제공하였다. 여성에게 가문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욕망을 습득하고 조상을 현창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은 가승류를 학습하였고, 필사 및 정서를 통해 친정 가문의 이익과 욕망이라는 사적 가치를 전파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왕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서적을 편찬하였고 다시 한

글로 번역하여 여성에게 제공하였다. 가문뿐만 아니라 국왕도 여성의 지식의 범주에서 “정치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여성의 독서가 “정치사”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실정과 어긋난다. 셋째, 조선시대는 왕과 왕비가 중국사 및 조선사를 여성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중국사 번역은 주로 왕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종은 중국의 正史가 한문으로 된 것만 있고 한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고 하였다. 조대비는 조선사를 번역하여 왕실 여성에게 제공하였다. 이 점을 기반으로 여성이 조선의 야사 번역본도 읽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연행록 번역은 여성의 이국에 대한 선망과 호기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여성은 번역본 연행록을 읽으며 견문의 지를 넓혔다. 여성의 연행록 독서는 개인적인 즐거움과 사적인 쾌락과 연결되었고, 여성은 공적 가치, 권력의 의도에 구속된 독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조선시대 여성의 독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범주를 넘어섰고, 여성의 지식은 점점 더 확장되고 해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고문헌이 간행, 필사되었는데 주지하듯이 이는 대부분 남성을 독자로 상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도 이 고문헌을 활용하였다. 여성지식사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고문헌도 고찰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加髢申禁事目』(규장각소장본)
姜浩溥, 『상봉녹』(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소장본)
『력대긔년』(장서각소장본)
『綸音諺解』(규장각소장본)
李世澤, 『黨禍錄』, 『國朝歷年士禍錄』(고려대학교도서관소장본)
윤용구, 『명ᄉᆞ긔람』(장서각소장본)
『別下冊』(충청남도 역사박물관 소장본)
『ᄉᆞ문대의록』, 문화재관리국장서각, 1971, 1-214면
『삼국디』(국립중앙도서관소장)
『쇽명의록』(장서각소장본)
조대비, 『야ᄉᆞ』(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소장본).
『闡義昭鑑』(규장각소장본)
『闡義昭鑑纂修廳儀軌』(규장각소장본)

경북대 퇴계연구소 편, 『퇴계선생연보국역본』, 한국출판사, 1992.
고운기, 「한글본 燕行錄의 제작 양상—새 발굴 자료 桑蓬錄과 乘槎錄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2004, 5-28면.
_____,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평민사, 2004.
국립중앙도서관 편, 『선본해제』1-19,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 2012.
김남이, 「조선 전기 여성 주체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사례 연구—『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한 고전 여성 지식 체계의 생성 기반에 대한 시론으로서」, 『여성학연구』 28, 부산대 여성연구소, 2018, 47-85면.
김목한 외, 『장서각한글자료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1-671면.
김백철, 「英祖의 義理明辯書 『闡義昭鑑』 편찬과 정국변화—堯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전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 33, 2010, 7-40면.
_____, 「정조 초반 『명의록(明義錄)』과 왕권(王權)의 위상—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상의 경계」, 『대동문화연구』 95, 2016, 149-183면.
문화재관리국장서각, 『ᄉᆞ문대의록』, 문화재관리국장서각, 1971, 1-214면.
문희순, 「16세기 여성지식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165-198면.
박영민, 「신부용당(申芙蓉堂)의 삶과 문학 연구」,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411-444면.
_____, 「憑虛閣 李氏의 『淸閨博物志』 저술과 새로운 여성지식인의 탄생」,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261-295면.
_____, 「빙허각 이씨의 고증학적 태도와 유서 저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5-41면.
박인호, 『됴야기문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346면.

박재연,『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1, 국립중앙도서관, 2009, 96면.
박정숙,「사후당 윤백영의 업적 및 한글서예 작품 특징 분석」,『조형교육』61, 한국조형교육학회, 2017, 85-116면.
배혜숙,「을해옥사의 참여계층에 관한 연구: 나주부 괘서사건을 중심으로」.『백산학보』40, 백산학회, 1992, 187-215면.
백두현,「한글 필사본의 필사기류에 나타난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제25회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2007, 49-76면.
_____,『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 1-549면.
백순철,「금행일기(錦行日記)와 여성의 여행체험」,『한성어문학』22,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2003, 59-79면.
서울대학교규장각,『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1-7, 서울대학교규장각, 1993.
서종태,『국립중앙도서관 선본 해제』X, 국립중앙도서관, 2007, 139-140면.
성민경,『女訓書의 편찬과 역사적 전개: 조선시대-근대전환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1-274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한글문헌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1-433면.
소재영 외 주해,『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1-842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1-12, 평민사, 2005.
이광호 외,『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2007, 1-612면.
이옥이,「윤용구의 정사기람 서체 연구 : 일중 한글서체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13, 1-88면.
이종묵,「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장서각』, 2002, 59-89면.
이혜순,「19세기 여성비평문학의 출현과 그 의의」,『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 2000, 55-80면.
_____,『(조선조 후기)여성 지성사』, 이화여대출판부, 2008, 1-414면.
정내원,「漢譯本 연행록『桑蓬錄』의 특징과 漢譯 양상 연구」,『동양고전연구』55, 동양고전학회, 2014, 147-172면.
정우봉,「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大東文化硏究』109, 2020, 241-281면.
채송화,「『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민족문학사연구』55,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427-461면.
최성환,『영·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1-533면.
최우영,『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Ⅳ, 평민사, 2005, 87-90면.
한영균,「한글 연행록류의 서지와 산출 시기」,『열상고전연구』49, 열상고전연구회, 67-94면.
홍윤표,『國語史 文獻資料 硏究』, 태학사, 1993, 1-571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main.do.
한국고문헌종합목록, https://www.nl.go.kr/korcis/index.do.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Abstract】

Hangŭl Versions and History of Women's Knowledge in Chosŏn Korea

Park, Young-Min*

This paper examines corelation between hangŭl versions of historical books for female readers and women's knowledge as part of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cultural history of women's books and reading under the goal of tracking the path of female intellectual history in Chosŏn Korea. Hangŭl versions for female readers would help analyze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y can have access to at that time as well as the process of knowledge 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intelligence.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ven in the Chosŏn Dynasty, the materials which helped to understand the family's political position and family activities or history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provided to women, which obligated women to acquire the interests and desires of a specific group of families and to manifest their ancestors. Thus, women learned these materials and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private values of the interests and desires of their family through transcriptions. Second, the king also compiled books to form public opinion that promoted and supported his political position, and translated them into Korean and provided them to women. Not only the family but also the king did not exclude "political history" from the range of women's knowledge. It is contrary to the situation that women's reading during the Chosŏn Dynasty has nothing to do with "political history." Third, kings and queens translated and provided Chinese and Chosŏn history for women to read. Translation of Chinese history was mainly conducted by the king's instructions. King Kojong said that he was sorry and ashamed of the situation in which Chinese official history only written in literary sinitic. Dowager queen translated Chosŏn history and provided it to royal women. Based on this point, it can be inferred that women also read translated unofficial history of Chosŏn. Fourth, the translation of Records of Travels to Peking was implemented by women's envy and curiosity about foreign countries, and the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women expanded their knowledge by reading these translations. Women's reading Records of Travels to Peking was linked to personal happiness and private pleasure, which freed women from reading bound by public values. The range of women's reading went beyond the general assumption, and women's knowledge gradually expanded.

Keywords: History of Women's Knowledge, Korean Translation, Reading, Formation of Public Opinion, Public Values, Private Values, Enjoyment, Knowledge Emission.

접수일: 2021.12.31.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26.